

1조 논평문

23011812 배서은

23011813 하지향

23011815 박선우

23011816 황유리

23011817 허현빈

I. 서론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행복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폴로스와 논변을 펼치게 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소크라테스와 폴로스의 논변을 분석하였고 대전제 3가지를 제시하며 정의와 행복의 본질에 관련하여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앞서 말한 발표자의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 근거와 주장의 연결성, 예시의 적절성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 논의하였다. 발표자의 논변 정리 부분은 대개 주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한 반면에, 서론 부분에서 논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논변의 타당성 부분에서는 예시의 적절성, 근거와 주장의 연결성 부분에서 다소 보완할 점이 존재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류 또는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본론

1. 서론에 관하여

서론에서는 논제의 의미와 논제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서술해야 한다. 발표자는 논제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잘 밝혔으며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잘 정리하여 언급했다. 그러나 논제의 의미에 대해 다룬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 논제의 의미를 우리랑 다르게 생각한건가..?

2. 본론에 관하여

논변 분석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논쟁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였다. 그러나 논변 타당성 부분에서 여러 보완할 점과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대가를 치르는 것의 기준

발표조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행복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 몹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가를 치르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로지 사법 기관의 처벌만이 올바른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구식의 법이더라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악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 역시 불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2) 논변 타당성과 대전제의 연결성

발표조는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소크라테스 논변의 3가지 대전제가 옳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저 각각의 대전제가 옳은 이유만 설명 할 뿐, 이후 언급되는 내용 어디에서도 왜 대전제라고 주장한 것들이 옳으면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논변에 대한 타당성 증명 과정에서 주제와 근거의 연결성이 다소 약하다. 제시한 3개의 대전제가 소크라테스 논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OK. 우리의 의견 추가해서 쓰면 될 듯함.**

3) 대전제 1 - 발표조의 의견 부재

발표조는 첫 번째 대전제에 대해서 그저 관련 워딩과 소크라테스의 의견을 나열 한 후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짓는다. 하지만 여기서 발표조의 의견이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근거 확보를 통해 소크라테스 논박 논변에 대한 발표조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OK. 나열한거 인정하지만, 첫번째 대전제에서
우리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을지 의문..**

4) 대전제 1 - 발표문 내용의 모순

발표조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행위가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 것이고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이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면 나쁜 것이고 작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옳지 않고 해로운 상태에 있는 개인은 나쁜 상태에 있다. 해로운 생각을 품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고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쁘며 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것일까 불의한 것일까? 여기서 발표문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한동기에서 비롯된 행동 → 선한결과

⇒ 예를 들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예시가 생각나지 않음.

그리고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비판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

5) 대전제 2 – 정의를 ‘여러 사람의 동의로 만들어진 약속’이라 할 수 있는가?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데,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사람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리와 진리는 각각 다르다. 만약 상충하는 정의가 맞닥뜨린다면 무엇이 훌륭한 정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의가 여러 사람의 동의로 만들어진 약속이라는 발표조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애초에 기준적인 틀이 있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범위가 있을것임.

6) 대전제 2 – 정의로운 것은 모두 훌륭한 것인가?

만약 정의가 여러 사람의 동의로 만들어진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동의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 훌륭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때때로 독재적이거나 편협한 사회에서 나온 동의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약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약속이 정의이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의가 무조건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에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 될듯.

7) 대전제 2 – 이롭지 않은 정의도 존재할 수 있다.

이롭지 않은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롭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경제 성장 정책이 있다. 경제 성장 정책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통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모델을 강조하고,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이롭지 않은 정책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의로운 것’이 훌륭하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8) 대전제 3 – 불의를 제외한 다른 것들도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조는 나쁜 것에는 분노, 탐욕, 불의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불의를 제외한 다른 나쁜 것들은 모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탐욕으로 인해 다른 이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을 당하는 자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그 자 또한 분노라는 나쁜 상태로 만들어버리므로 발표조가 언급한 (a-2), 즉 ‘한 사람의 나쁨으로 다른 사람까지 나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에 해당하게 된다.

→ 그러니까 애초에 이 행위를 불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9) 대전제 3 – 사회의 전제와 질서는 언제나 옳고 공정한가?

'불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파괴하여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전제와 질서가 언제나 옳고 공정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사회의 전제와 질서는 언제나 옳고 공정한 것이 맞을까? 간혹 여러 부정적인 요소(부정행위, 차별, 억압 등)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예로, 억압적인 정부에 대응하는 행동은 '불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낸다면 이 '불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런 정당화되어서 그런거지, 이런 경우를 정의로 상태라고
여기로 할 수 있을까..?

3. 결론에 관하여

결론에서는 의견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하며 마무리해야 하는데, 발표조의 결론에서는 그저 본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나열만 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의 역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한테 계속 "의견"을 강조하는듯함.
의견 중 더 추가하면 좋을듯.

III. 결론

책의 내용에 기반하여 발표문을 잘 작성하였으나, 책에서 언급되는 여러 어휘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논변의 타당성과 대전제의 연결성이 부족했고, 대전제를 기반으로 논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불의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부분 역시 존재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 나열된 내용만 요약할 뿐, 발표조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발표조의 주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발표문이 전개되고 있다. 발표조는 적절한 예시와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 "의견"을 많이 추가해달라.